



법인 설립 21년을 맞이한 광주신세계 전경.

지역민과 아름다운 동행... 호남최고 랜드마크 비전 목표

법인설립 21주년 맞은 광주신세계

#1. 21년 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청년은 광주신세계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별다른 직장을 잡지 못했던 그는 아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매일 정규직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다. 계약된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났지만 직원들은 성실한 그를 잊지 못했고, 정규직 사원채용에 고졸인 그를 추천했다. 21년이 지난 후 그는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어엿한 과장이 됐다.

#2. 양동시장 닭전머리에서 그릇을 팔던 한 상인은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권유로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었다.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속에서도 그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장사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로 백화점에 정식 입점한 유명 브랜드의 매출을 앞지를 수 있었다. 현재 그는 광주양동시장과 금호월드 등지에 상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상인이 됐다.

광주 현지법인 광주신세계가 만든 기적이다.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임훈)가 10일 법인설립 21주년을 맞았다. 광주신세계의 출발은 철저한 '광주화'였고 이런 지역 친화 이미지는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전남 11번째 상장기업이 됐다.

특히 장학사업, 희망나눔활동, 문화예술체육지원, 사회봉사 등의 지역상생사업을 구체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콘텐츠로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상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관내 전통시장 보존 구역으로 지정된 화정동 서부시장과 체결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은 상호 균형 발전 모델로 관심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양동전통시장 상인회 협의회(7개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

지역 인재 육성·사회봉사 앞장
신선식품 80% 지역상품 공급
신진 작가 배출 '미술제' 개최

발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현지 바이어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농·수·축산물의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백화점 내 판매 중인 신선식품의 80% 이상을 지역 내 상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상품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업계 유일 현지법인인 광주신세계는 출점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도우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지속된 광주신세계 장학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인재 2060명에게 총 21억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을 위한 희망 나눔 활동은 환아 치료비 지원, 희망배달마차(소외계층 생필품 지원, 재해재난 지역 긴급지원 등), 희망장난감 도서관 개관, 저소득층 아동 생활비 지원의 바탕이 된 매칭그랜트로 이어졌다.

2006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작된 희망나눔 매칭그랜트 제도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기부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임직원의 자긍심도 진작시키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성과를 보여줬다.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설치비뿐 아니라 매년 1000만~1500만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청사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 대여, 놀이방 이용,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한 인원이 지난해 7월 문을 연 후 현재까지 1만6000여 명에 달할 만큼 높은 인



임훈 대표이사

기를 끌고 있다. 이에 평일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직장맘들을 위해 3월초부터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후원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대회 첫 회부터 지금까지 총 15억여원을 지원했고 디자인비엔날레와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에도 각각 3000여 만원의 정

기적 후원하고 있다.

또 지역 신진 작가들의 예술 등용문으로 통하는 '광주신세계 미술제'는 지난 20년간 이이남, 송봉채, 이정록과 같은 젊고 역량이 있는 작가 74명을 배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후원하고 알리는 데 적극 나서며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역친화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신세계는 여수국제박람회, 광주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F1 코리아 그랑프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제 행사와 지역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이런 노력들은 많은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또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사내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05년과 2009년, 2012년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무엇보다도 광주신세계는 임직원 95% 이상이 광주·전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임직원의 7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훈 대표는 "이제 새로운 '제2의 도약'과 '호남 최고 랜드마크 비전' 달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선도하면서 지역과 동행하는 따뜻한 기업으로서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시장 반등 이끌 이슈·매수세력 없어 박스권 등락 이어갈 듯

엔고 수혜업종 철강·자동차 관심을

지난주 코스피지수와 글로벌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의 6조6000억원을 공시했다. 증권사 평균 예상실적 5조6000억원 보다 1조원이 많았고 가장 좋게 전망했던 JP모건의 6조3000억보다도 3000억이나 많은 어닝서프라이즈였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7 시리즈가 최단기간 1천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연말 1160원선이던 월달러 환율이 2월말 1240원선까지 상승한 것도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런 양호한 실적에도 실적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 삼성전자 실적호전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월달러 환율이 2분기에는 1분기와 같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기관의 차익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관심이 집중되었던 글로벌 이슈는 단연 엔화강세 현상이다.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며 급락하던 엔달러 환율이 2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이려는 데 지난주 금요일 장중 108엔선 이하로 하락하다 단기 급락에 따라 소폭 반등하며 지난 금요일 108.62엔으로 마감했다. 이러한 엔화강세 배경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최근 반등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다시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가치 절하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며 하락세가 빨라지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엔화강세는 통상 국내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에 따라 수혜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국내 수혜업종이었던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의 엔화강세는 금융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한 것이고 최근 원화의 흐름도 엔화와 동반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 엔화강세로 국내수출기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주 국내증시는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월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하락함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할 수 있고 기관도 주식형펀드 환매에 따라 순매도 양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반등을 이끌 뚜렷한 이슈나 매수세력이 없어 연초와 같은 급격한 조정은 없었지만 이번 주에도 지수의 추가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발표시즌이 시작되고 있어 양호한 분기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나 추가로 엔화강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엔고 수혜업종인 철강 자동차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기차 바이오제약 등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